'茶'의 절대적 두 고전 깊이 연구한 '성과'



육우다경 육우 지음 | 한유미 주해 | 5만7천원
동다송 초의 지음 | 한유미 주해 | 3만6천원

'차(茶)'의 고전 〈다경(茶經)〉과 〈동다송(東多頌)〉의 연구서다. '차(茶)'의 원전(原典)을 논할 때 〈다경(茶經)〉과 〈동다송(東多頌)〉은 빼놓을 수도, 두 번째로 생각할 수도 없다. 두 고전은 차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 저변에서도 절대적인 텍스트이다. 하지만 차 문화를 상징하는 두 고전의 중요성과는 달리 두 책에 대한 국내의 연구 성과는 미약하다. 특히 그것은 일본이나 중국학자들의 일방적인 견해를 옮겨 놓은 것이 대부분이라서 깊이 있는 연구서라 부를 만한 것 역시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번에 나온 〈다경(茶經)〉과 〈동다송(東多頌)〉은 이런 열악한 상황을 만회하는 연구서로 저자가 6년여의 작업 끝에 내놓은 역작이다. 차의 가공과 심평의 전문인으로, 차 품평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평(心評)'이란 용어를 알렸던 저자는 "중국 차 문화의 역사적 두께에 밀리고 일본의 탄탄한 사회적 기반과 학문적 기세에 밀려 누구도 우리만의 생각을 드러낼 연구에 엄두를 내지 않는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책이 사용되기 바라는 것이 첫 번째 집필 목적이다."고 출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다경〉은 1200여 년 전에 나온 차 문명의 시발점이 된 책이다. 차의 가치와 차 전반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전문 서적으로, 3권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 전반을 다루고 있는 전문서적이지만 육우의 독창적 정신이 종합적 발전 형태로 기록된 실용서이다. 〈다경〉은 정통 사관의 저술이 아닌 문화라는, 조금은 변방이라 할 분야의 지극히 개인적인 저술이다. 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을 보면 그 시대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분야에 대한 사명감을 충분히 발휘했고 더욱이 '경(經)'이라는 글자까지 붙이며 시대적, 역사적 사명에 부합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경〉은 득차를 위한 전제 조건인 성차(成茶·자연과학적 관점의 물질적인 차를 이루는 것)를 위한 책이다. 득차(내면)의 열망이 외부의 발전을 불러일으킨 물증을 수중(守中)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수중은 성차의 완결이다. 이 완결이 차의 근본을 지키는 일을 향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육우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다. .

책은 〈다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과 지명에 대한 주석을 상세하게 달았으며, 토씨 하나에서 시작된 의문을 당대의 생활상으로 확장시키고 육우의 정신세계로까지 연결 짓고 있는 대목은 연구서로서의 성과로 보인다. 더구나 차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누메노(일본)의 학설을 반박하는 저자의 새로운 시각은 연구실에 익힌 지식과, 차 가공과 심평의 전문인으로 차와 더불어 살아온 일반적인 차인이라는 사람들의 시선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육우의 차 정신의 백미를 수중(守中)이라 단언함에 있어서 '배꼽이 긴 차솥'을 근거로 제시하는 치밀함이나, 가끔씩 던져놓은 한국 차계를 향한 고언 등을 보면 차와 하나 된 삶을 살아온 차인의 엄정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동다송〉은 '우리나라 차를 칭송한다'라는 뜻을 가진 서사형식의 다시(茶詩)이다. 서울 살던 정조의 사위 홍현주가 진도부사 변지화에게 차에 관해 물어본 것이 계기가 되어 초의가 1837년(52세)에 〈동다행(東茶行)〉이라는 제목을 붙여 저술하여 바친 글이다.

초의의 〈동다송〉은 원본이 없다. 지금 우리가 판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필사본이다. 책은 오탈자가 가장 적고 원본에 가깝다는 개인 소장의 〈석경각본〉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전서〉에 실린 것과 정영선의 〈경암등초본〉을 참고 하여 쓰여졌다. 초의가 인용을 했거나 영감을 받았을 것 같은 자료들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해에 달아놓았다.

초의의 〈동다송〉에는 시구를 이해를 돕기 위해 협주를 달았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짧지 않은 시구에다 협주가 길고 많아 시(詩)로서 감상하는 편집을 하지 못했다. 저자는 "시의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차에 대한 정보전달이 목적인 협주의 분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구로 감상하는 것이 형태상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으며, "어쨌든 시구와 협주만을 따로 모아 감상의 효과를 맛볼 수도 있었고, 협주 때문에 끊어지는 시구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협주 자체만이라도 한문은 한문대로 해석은 해석대로 따로 모은 편집을 했더라면 시각적으로 보다 집중이 되었을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초의가 차에 일가견을 지녔다하나 중국의 다서를 보고 차 만드는 것을 책으로 배우다시피 한 것이어서 일관성 있는 제다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초의가 차에 대해 명성이 있었던 것은 품질보다는 중국에서 차를 구해다 먹는 것이 어려운 사대부들이 국내에서 조달하게 되었으니, 품질이니 뭐니 따지는 것은 둘째였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초의는 실학자인 정약용과의 뜻하지 않았던 인연과 또 그로 인한 사대부들과의 인맥과 학문, 자신의 문학적 재능 등이 어우러져 지적 목마름을 맘껏 충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초의에 대한 생각에서도 저자는 거침없는 직설과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음이 지금까지의 저술들과는 차별되는 점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아이들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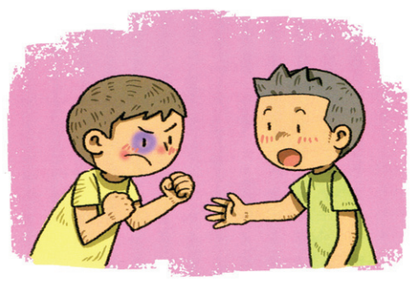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 마음거울 108' 앱 개발 지원 스님 엮음 | 너울북 펴냄 | 각 권 1만6천원

자녀를 키우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운 일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특히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단순히 '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우리들의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일은 가정이나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책은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커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로 몇 해전 조계종 포교원(원장·지원)에서 개발하고 배포한 모바일 앱 '어린이·청소년 마음거울 108'이 모티브이다.

아이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고 아픈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아이들은 지금 아프다.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성장기에 따라 문제의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이나 게임, 스마트폰, 채팅 등 각종 중독현상을 비롯하여, 폭력성이나 정서불안, 행동장애, 왕따, 반사회성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점점 더 삭막하고 황폐해져 가는 아이들의 정신세계, 문제는 알지만 막상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책은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두 책은 각각 108개의 다짐말(주제어)과 주제에 맞는 예화와 일러스트, 그리고 생각거리와 토론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핵심이자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다짐말은 단순 명쾌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화는 동서양의 각종 고전이나 철학, 종교, 유명한 이야기들, 혹은 인류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의 일화 등을 통해 주제어에 대한 설득력을 부여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생각 및 토론거리는, 아이들이 각각의 경구와 예화를 읽고 나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몇몇 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좀 더 성숙해지고 사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경구는 간단히 읽고 새김으로써 하루의 다짐이나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예화는 아이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야기책으로, 생각 및 토론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의 주제로 활용할 수 있다.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존감이다. 자기 스스로를 믿고 아끼고 존중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이야말로 아이들이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강한 자존감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변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도록 이끌어준다. 책에 실린 다양한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처럼 책을 통해 아이들은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갖추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헤쳐 나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생활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기는 모든 것이 형성되어 가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때의 경험과 마음가짐은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심성 계발에 관심을 두고 꾸며진 책은 이 시기의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간추려, 맑은 심성과 건전한 사고방식, 따뜻한 정서를 갖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이자 지침서의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이다. 아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의 행복이다. 책은 사회 전체가 읽어야 할 책이다.

박재완 기자

시대가 빼어간 본연의 감각을 찾아서

유쾌한 먹탱이의 문자로 보는 세상

권상호 지음 | 푸른영토 펴냄 | 1만2천8백원



수많은 한자가 등장하는 책으로, 서예가이고 국문학도인 저자가 예술에 대해, 문자라는 학문에 대해, 그리고 일상에 대해 이야기 한다. 책은 '서예의 향기', '문자의 향기', '생활의 향기'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말한다. 왜 책을 썼는지.

"우리는 잃은 게 너무 많다. / 텔레비전을 얻은 대신에 대화를 잃었다. / 컴퓨터를 얻은 대신에 생각하는 힘을 잃었다. / 휴대전화를 얻은 대신에 독서를 잃었다. / 인터넷을 얻은 대신에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잃었다. / 키보드를 얻은 대신에 붓마저 잃어버렸다. 〈중략〉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다시 말한다.

"생각과 느낌의 씨앗인 말, 글에서 빛바랜 이성과 감성을 되찾고 느림의 미학인 서예를 통하여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고.

'서예의 향기'에서는 느림의 미학인 서예와 글자에 대해 이야기 한다.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시대가 빼앗아 간 우리들 본연의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속에 녹아 있는 옛 선조들의 인생살이에 대한 지혜를 배울 때 우리는 윤택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먹을 통해 느릿느릿 그려지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잠시 잊고 있었던 소중한 인생의 가치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자의 향기'에서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한자와 문자를 가지고 인생을 이야기 한다. 정통 문자학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문장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정통 문자학을 뛰어넘는 유쾌한 문자학을 선보인다.

'생활의 향기'에서는 문자를 풀이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유식의 활동도 얼마든지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또 학문과 예술은 어울릴 수 없다는 선입견을 깬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그 절묘한 조화의 매력에 빠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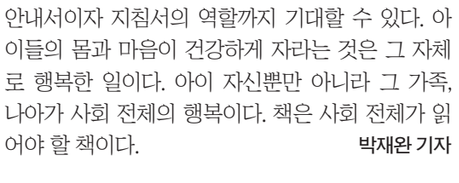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31 ~ 8/6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6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택	조계종출판사
7	이해하고 내려놓기 (팔정도)	일묵	궁리
8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9	걷기 명상	조성래	알아차림
10	우리 모두는 부처다(불교의 네가지 진리)	종서은 잠앙 켄체	팡세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송 담 원로위원 월 현
원로위원 월 각 원로위원 정 인
원로위원 수 덕

총무원장 법 정
행정원장 도 경 사정원장 법 륜 문화원장 진 송
교육원장 청 담 포교원장 동 화 비구니원장 법화 청명
비구니부원장 설 봉

총무원
총무부장 우 담 재무부장 월 산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법규위원장 설 산
환경위원장 혜 득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청 명

종무원
경북1종무원장 월 정 경북2종무원장 성 덕 경북3종무원장 혜 득
경북4종무원장 해 산 대구1종무원장 광 덕 대구2종무원장 해 산
서울1종무원장 일 휴 경기1종무원장 원 담 충청1종무원장 계 현
강원1종무원장 연 정 전라1종무원장 법 도

구족계 및 포살 보살수계 산림대법회 안내
일시 : 불기 2557년 8월 25일 일요일(음 7월 19일) 오후 1시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 SCO 구관 3층 306호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095 동명사 054)974-2605 053)942-4546